진국(辰國)과 진왕(辰王)

- '한(韓)'의 성립과 관련하여 -*

김성한**

〈차 례〉

1. 머리말
2. 진국과 한국
   1) '진'에서 '한'으로
   2) '고지진국(古之辰國)'의 이해
3. 진왕의 실체
   1) 『위략(魏略)』의 '주(主)'와 『삼국지(三國志)』의 '진왕(辰王)'
   2) 진왕의 실체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삼한(三韓) 이전의 진국과 삼한 때의 진왕을 '한'의 성립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진말(秦末)·한초(漢初)의 격동기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피난하여, 전국시대 연(燕)·제(齊)·조(趙) 출신의 사람들은 고조선지역으로, 진(秦) 출신의 사람들은 한(韓)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실제로 진인(秦人)이 한지(韓地)로 들어왔을 당시는 아직 '한'이라는 지역명이 존재하지 않

* 이 논문은 201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았고, 이후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쫓겨나 남쪽으로 와 한왕을 자칭하면서 '한'이라는 지역명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한이라는 정치체의 명칭 역시 전국시대 진(秦)의 유이민들이 한의 동쪽에 '진한'이라는 정치체로 성장한 것을 계기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이라는 지역은 이전에 '진(辰)'이라는 정치체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진'은 그 중심지가 서방에 위치한 반면에, 그 뒤에 성립한 '한'은 그 중심지가 동방에 위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왕은 마한의 목지국(目支國)을 치소(治所)로 하면서 삼한을 대표하였고, 진한 제국(諸國)이 이에 속하였다. 그리고 진한 제국의 거수(渠帥)는 마한인이 맡았는데, 진한인이 유이민(流移民)이었던 까닭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계승할 수는 있었지만, 마한으로부터 자립할 수는 없었다. 진한 각국의 거수는 새로 즉위할 때마다 진왕의 허가를 얻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삼한 제국 거수는 위(魏)나 진(晉)으로부터 읍군(邑君)·귀의후(歸義侯)·중랑장(中郎將)·도위(都尉)·백장(伯長)의 호칭을 하사받아 그들 간의 서열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정점에 진왕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진(辰), 진국(辰國), 진왕(辰王), 한(韓), 마한(馬韓), 진한(辰韓), 삼한(三韓), 준왕(準王)

1. 머리말

오래 전의 역사일수록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설사 밝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못 밝혀진 것도 많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일 것이다. 한국고대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이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초기기록은 특히 기년(紀年)에 문제가 있어 쉽게 취신하기에는 문제가 있고,[1] 『삼국유사』의 기록도 정사(正史)와 같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어서 참고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고대사는 상당 부분 중국측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고대사의 여명을 밝히는 데 유용한 중국측의 기록은 '전사사(前四史)'로 불리는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이다. 대체로 고조선의 역사는 『사기』와 『한서』, 삼한의 역사는 『후한서』와 『삼국지』에 의존하여 왔다. 고조선의 역사는 『삼국유사』 등에 의해 단군조선이, 『사기』와 『한서』에 의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학계는 대체로 기자조선를 부정하고 있는데, 최근 기자조선의 실체를 다시 인정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아직은 대세가 아닌 듯하다.[2]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시각은 최근에 심지어 중국 측 사서(史書)에 기자의 후예로 되어 있는 준왕의 남래(南來)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기자가 동래(東來)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노릇하고 그 후예인 준왕이 한지(韓地)에 와서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사서상에 기자가 조선에 가서 왕노릇하였고, 그 후예인 준이 한지에 가서 왕노릇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조선에 대한 한사군(漢四郡)의 고조선 지배와 중국 군현(郡縣)의 한지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3]

우리학계는 중국 측 사서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편찬되었다고

---

1) 강종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제문제」,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 pp. 17-41 참조.

2) 박대재, 「箕子 관련 商周靑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한국고대학회, 『先史와 古代』 32, 2010, pp. 113-114 참조.

3)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한국고대학회, 『先史와 古代』 35, 2011, pp. 111-133.

하는데, 그들의 중화사상이 주변국의 역사 사실 자체를 왜곡할 정도로 편협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 측 정사에는 주변국가에 대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관심이 있는 것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가 자체의 역사에 중요한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 서술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은 일을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우리학계가 지적하고 있는 중국 측 사서의 가공 가능성의 하나는 기자조선이나 준왕 남래의 기사가 후대로 갈수록 풍부해지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사기』에 간략하게 보이는 기자조선에 관한 기록이 『한서』에 와서 보다 풍부해지고, 『삼국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중국 측 사서 편찬자에 의한 가공의 산물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결과일 것이다. 고조선 영역에 한(漢)의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중국 측은 기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그 뒤 한군현과 한(韓)의 왕래를 통해 준왕 남래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고대사 연구자들은 옛 기록의 한 줄을 가지고 한 편의 논문을 쓰지만, 옛날 중국 측 사서 편찬자들은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함축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류가 당시의 사실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정사에 사이전(四夷傳)을 두는 까닭은 주변국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기』 흉노전(匈奴傳) 등에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흉노에 대한 굴욕적인 모습도 거침없이 서술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4]

---

4) 『史記』 권56, 陳丞相世家傳, p. 2057(이하의 중국 정사는 중화서국 표점본

본고에서는 준왕의 남래를 인정하는 위에서 진국과 진왕에 대해 한(韓)의 성립 및 진(辰)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고대사 연구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고고학 연구성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헌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측 사서에 전하는 한과 진에 관련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서술의 범위를 좁혀 보고자 한다.

2. 진국과 한국

1) '진'에서 '한'으로

진말(秦末)·한초(漢初)의 중국 격동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여 동방으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다음의 자료는 그 일면을 보여준다.

A-1-1 朝鮮侯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濊조)

A-1-2 及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所引 『魏略』)

A-1-3 漢初大亂, 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擊破準而自王朝鮮, 傳國至孫右渠.(『後漢書』 권85, 東夷傳 濊)

A-2-1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 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에 따른다); 『漢書』 권33, 韓王信傳, pp. 1854-1855.

A-2-2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避苦役,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A-1기사는 진말(秦末)에 진승(陳勝) 등의 봉기로 중국이 혼란에 빠져 연(燕)·제(齊)·조(趙)의 백성이 고조선에 망명해 오자, 고조선의 준왕이 이들을 그 서방에 안치(安置)한 사실을 전한다. 여기에서의 연·제·조는 전국시대 연·제·조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백성 역시 전국시대 연·제·조의 백성이다. A-2기사는 '진역(秦役)'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온 사람들에게 마한이 자신의 동쪽 경계지역을 떼어주어 살게 한 사실을 전한다.

먼저 A-1기사의 유이민(流移民)과 A-2기사의 유이민의 관계를 살펴보자. 『삼국지』(A-2-1)와 『후한서』(A-2-2)의 기사는 밑줄친 부분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문맥상 후대에 편찬된 『후한서』가 『삼국지』의 기사를 개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국지』의 "古之亡人避秦役"이란 구절이 『후한서』에서 "秦之亡人避苦役"으로 개서된 것이다. 『후한서』는 『삼국지』의 '고(古)'자 대신에 '진역(秦役)'의 '진(秦)'자를 빼서 넣고, '진(秦)'자에는 새로 '고(苦)'자를 넣어 개서한 것이다.[5] 『후한서』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망인(亡人)'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B) 『삼국지』에서 '진인(秦人)'과 같다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서하여도 두 기사가 일견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나,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와전되어 있다. 먼저 『삼국지』의 '진역'을 『후한서』가 '고역'으로 씀으로써 '망인'이 만리장성·진시황릉·아방궁의 축조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피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A-1기사에 의하면 연·제·조의 백성은 진승(陳勝)·항우(項羽) 등 대규모 농민반란에 의해 벌어진 진말의 대규모 전

5) 申鉉雄, 「『晉書』 辰韓傳 記事의 性格」,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新羅文化』 30, 2007, p. 24.

쟁을 피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A-1기사에 의거해 볼 때, 『삼국지』의 '역(役)'은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6]

다음으로 '진(秦)'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삼국지』의 '진역(秦役)'의 '진(秦)'과 『후한서』의 '진지망인(秦之亡人)'의 '진(秦)'은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를 가리킨다. 하지만 진한인(辰韓人)의 기원이 된 '고지망인(古之亡人)'은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의 망인(亡人)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사가 주목된다.

B-1 辰韓 …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B-2 辰韓 …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B기사는 진한인의 언어가 '진인(秦人)'(B-1)·'진어(秦語)'(B-2)와 유사하여 진한(辰韓)을 '진한(秦韓)'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어'가 연·제의 명물(名物)과도 다르다[7]고 한 것(B-1)을 볼 때, 이 '진(秦)'은 중국을 통일한 국가

---

6)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辰韓을 세운 '亡人'이 戰國時代 秦나라 사람이라면, 그들이 韓國으로 피난하게 된 배경이 萬里長城 등의 苦役이라고 하기보다는 秦 末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라는 기사를 "秦人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燕·齊의 名物과도 유사하다"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앞의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라는 구절에서 '國'을 '邦'으로, '弓'을 '弧'로, '賊'을 '寇', '行酒'을 '行觴'로 하고, 서로를 '徒'라고 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邦'·'弧'·'寇'·'行觴'·'徒'는 秦式 표현이고, '國'·'弓'·'賊'·'行酒'는 非秦式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非秦式 표현이 바로 韓이 자주 접할 수 있던 燕·齊式 표현일 것이다.

인 진(秦)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 전국시대의 '진(秦)'(앞으로 전국시대의 진은 '진'으로 표기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진한을 성립시킨 '진'인이 전국시대의 '진'인이라면 진말·한초에 동방으로 피난해 온 유이민에는 연·제·조의 백성뿐만 아니라 '진'의 백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후 진(秦)은 전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진'인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였을 것이고, 이 '진'인이 진말의 혼란기에 반란군의 공격대상이 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들 '진'인의 일부가 '진역(秦役)' 즉 '진말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왔던 것이다. 이들 '진'인은 연·제·조의 백성처럼 동방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연·제·조의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함께 고조선에 망명할 수 없어 '한국'에 망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1기사에는 진한인이 "낙랑인(樂浪人)을 '아잔(我殘)'이라고 하는데, 동방인이 '내[我]'를 '아(阿)'라고 하여 낙랑인이 본래 그 잔여인(殘餘人)임을 말한 것이다."는 구절이 있어, 연·제·조의 백성과 '고지망인(古之亡人)'('진'인)이 같은 부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절에 근거한다면, 진말·한초에 연·제·조의 백성이 동방으로 피난해 와 일부는 고조선에 정착하여 후에 낙랑인이 되고 나머지 다른 일부는 한지에 이르러 진한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 이와 같이 볼 경우 '진인(秦人)'은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

8) 辰韓의 秦人에 대해 李丙燾는 衛滿朝鮮이 망할 무렵에 낙랑방면에서 남하한 流移民으로(「「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255), 李賢惠는 古朝鮮의 멸망 혹은 衛滿朝鮮의 멸망 등을 계기로 이주한 중국계 유민으로(『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p. 52), 박대재는 衛滿과 함께 고조선에 유입된 戰國系 流民이 古朝鮮 멸망을 전후하여 다시 古朝鮮 유민에 섞여 이주한 것으로 보았다(「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一志社, 『한국학보』 31, 2005, pp. 19-21). 전진국은 중국과 다른 말을 쓰는 서북한 지역의 토착민으로 보았다(「'한(韓)'의 유래와 명칭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 176).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진인'의 '진'이 전국시대의 '진'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에서 백제를 '백잔(百殘)'이라 불러 백제를 적대시 또는 멸시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는 사실[9]을 감안하면, 『삼국지』(B-1)의 '잔(殘)'도 '잔여인'이라는 한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아(阿)'가 '나[我]'를 가리키는 동방인의 표현인 것처럼 상대방을 무시하는 동방인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낙랑인을 '아잔(阿殘)'이라 부른 것은 '진'이 중국을 통일하여 연·제·조의 백성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피지배민으로 간주하고 무시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계 유이민이 동방으로 유이(流移)하여 정착한 곳이 '조선'(A-1)과 '한국'(A-2)이라고 함으로써 진(221~206 B.C.)말·한초에 '한국'이라는 명칭이 존재하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A-2기사의 밑줄친 부분을 "耆老傳世自言"(A-2-1)·"耆老自言"(A-2-2)이라고 한 바와 같이 회고담이라는 사실이다. 회고담에 등장하는 '한국'·'마한'이라는 명칭은 '망인(亡人)'들이 '진역'을 피해 왔을 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회고 당시의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당시에 '한국'·'마한'이라는 정치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고 당시의 정치체를 언급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꾀하였던 것이다.[10]

그렇다면 '한국'·'마한'이라는 정치체는 언제부터 존재하였던 것일까.

야마구찌 가즈오는 秦人이 서역계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진한(辰韓)과 하타씨(秦氏)의 고찰」, 동아시아고대학회, 『東아시아古代學』 22, 2010, p. 291).

9) 李丙燾, 「樂浪郡考」, 앞의 책, 1976, p. 154.

10) 『博物志』 卷8. "箕子居朝鮮 其後伐燕之朝鮮 亡入海爲鮮國師". 이 기사의 "亡入海爲鮮國師"는 準王의 南遷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準王이 '韓王'을 자칭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鮮國師'가 된 내용만을 전한다.

C-1 至王莽地皇時, 廉斯鑡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 郡表鑡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所引 『魏略』)

C-2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後漢書』 권85, 東夷傳 韓)

C-1기사는 왕망(王莽) 지황(地皇, 20~23) 때 진한우거수(辰韓右渠帥)인 염사(廉斯)의 치(鑡)가 낙랑군에 망명해 왔고, 안제(安帝) 연광(延光) 4년(125)에 그 자손이 세역 면제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전한다. C-2기사는 건무(建武) 22년(46)에 한 염사인 소마시(蘇馬諟) 등이 낙랑에 공헌하여 한염사읍군(漢廉斯邑君)의 관함을 받아 낙랑군에 예속한 사실을 전한다. 두 기사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한' 또는 '진한'과 관련하여 '염사(廉斯)'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다. 비록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삼국 위 경초(景初, 237~239) 중에 한국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주었다[11]고 한 것을 보면, C-2기사에서 소마시가 봉해진 '염사읍군'은 '염사국(廉斯國)'의 신지임을 알 수 있다. 또 신지는 대국의 거수(渠帥)들이 사용한 호칭이므로 염사국은 대국임을 알 수 있고, 염사국의 치가 '진한우거수'라고 한 것을 보면 염사국은 진한의 서방에 위치한 대국임을 알 수 있다. C-1기사의 치는 낙랑군으로 이주해 살아 낙랑군으로부터 그 후손이 세역 면제의 혜택을 본 반면에, C-2기사의 소마시는 공헌을 하여 한(漢)으로부터 염사읍군에 봉해진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는 별개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C-1기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C-1기사에 '진한우거수'라는 용

11)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景初中, …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어가 보이는 것이다. '진한우거수'는 '정치체+직함'의 구조로 되어 있어 여기서의 '진한'은 당시 사용된 명칭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진한'이란 명칭은 왕망의 신(新)나라(9~23) 때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체로서 '진한'이라는 명칭의 등장은 정치체로서 '마한'이라는 명칭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12]

'한'이라는 명칭의 유래[13]는 준왕의 남천(南遷)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D-1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魏略』曰: …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浿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渡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爲朝鮮藩屛. …],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14]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D-2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15]

---

12) 전진국은 '韓'이라는 명칭이 前漢 말에서 後漢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012, p. 174).

13) '韓王'이라는 호칭을 準王만이 칭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전진국, 앞의 논문, 2012, p. 156).

14) "其子及親留在國者"에서 '國'을 古朝鮮으로 보아 準王의 아들과 친척으로 古朝鮮에 남은 자로 이해하는데(전진국, 앞의 논문, 2012, p. 165), 準王이 韓王을 자칭한 것을 계기로 古朝鮮에 남은 準王의 아들과 그 친척들이 '韓'氏의 姓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의 '國'은 '韓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後漢書』의 準王에 관한 기사는 『三國志』의 기사를 재정리한 인상을 준다. 즉 準王이 馬韓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는 것은, 準王이 韓地에 피난하여 오기 전에 이미 秦 末에 '秦人이 피난하여 와 그들에게 馬韓이 그들의 동쪽 경계지역을 떼어주어 살게 하였다는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

D기사는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한지'로 들어가 '한왕'을 자칭한 사실을 전한다.[16]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해 온 시기는 한(漢) 고조(高祖)의 사후(195 B.C.)에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한에 반란을 일으킨 뒤이므로 기원전 195년 이후이고, 그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렇다면 준왕이 '한지'에 와서 '한왕'을 자칭한 시점이 기원전 195년보다 뒤였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준왕이 '한지'로 온 시점(D-1)과 '망인(亡人)'이 '한국'에 온 시점(A-2)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있다. 즉 준왕이 '한지'로 온 시점은 기원전 190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한국'에 온 시점은 기원전 200년보다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사건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준왕이 '한지'에 와서 '한왕'을 자칭한 시점이 망인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 시점보다 뒤인 것이다. '한국'이라는 표현은 '한왕'이라는 존재가 전제된 것으로, '한왕'이 존재하기 이전에 '한국'이 존재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망인이 '한국'에 온 시점(A-2)에 '한국'이라는 정치체는 존재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準王이 韓地에 오기 전에 '秦人'에서 자신의 동쪽 경계지역을 떼어주어 살게 한 정치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準王이 韓地에 들어와 韓王을 자칭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력(馬韓)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馬韓人이 다시 스스로 辰王을 세웠다는 것은, 『三國志』에 韓王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馬韓의 目支國을 治所로 하는 辰王의 존재만이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6) 準王 南遷 자체를 史家의 윤색으로 보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박대재, 앞의 논문, 2011, pp. 111-133; 전진국, 앞의 논문, 2012, pp. 158-160). 이들 견해의 주된 근거의 하나로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료에서는 나타나지도 않던 이야기가 거꾸로 후대의 사료로 갈수록 점차 첨가되어 구체적으로 꾸며지는 양상을 들고 있다. 이는 사실의 윤색과 과정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왕조와 '韓'과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밀접해질수록 '韓'에 대한 정보량의 증대에 따른 자료의 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D-1기사에서 준왕이 정착하여 살았다는 '한지'라는 표현도 A-2기사에서 '망인'이 왔다고 하는 '한국'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D-1에 인용된 『위략(魏略)』에 의하면 준왕의 자식과 친척들[其子及親]이 '한씨'[17]를 '모성(冒姓)'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준왕과 그 후손들이 '한지'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한'을 성씨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한다.[18] 물론 준왕이 원래 '한'이라는 지역에 살게 된 것을 계기로 중국의 성씨인 '한'을 국성으로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이란 명칭은 전국 7웅의 하나인 '한'과 동일한 것으로, 전국 7웅의 한은 '한'을 국성으로 하였다. 한비자(韓非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전국 7웅의 하나인 '한'을 동이지역에서 준왕의 남천 이전에 지역명 내지 정치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만약 '한'과 동일한 발음의 지역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이라는 글자보다는 중국의 지명과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동음이체자(同音異體字)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한'이라는 명칭이 준왕의 정착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지'는 전에 무엇으로 불렸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단서는 D-2기사에 보인다. 즉 고조선의 준왕이 남천하여 '한왕'을 자칭하였다가 그의 후사가 끊기자 마한인이 '다시' 스스로 '진왕'을 세운 사실이다. 이로부터 준왕이 정착한 지역이 '한' 이전에 '진'이라고 불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이란 명칭

---

17) 韓氏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박대재, 앞의 논문, 2011, pp. 120-125; 전진국, 앞의 논문, 2012, pp. 165-170 참조.

18) 『潛夫論』 卷9 志氏姓 35. "昔周宣王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이 기사를 통해 準王이 韓氏의 姓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은 준왕이 남천하여 '한왕'을 자칭하면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진'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마한이 '한왕'이란 호칭 대신에 '진왕'이란 호칭을 다시 쓰면서 왜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진'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고 계속 불렀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삼국지』의 "그(韓王) 후사가 끊겨 사라졌는데, 지금의 한인 중에는 그 제사를 받드는 자가 있다."(D-1)고 한 구절을 통해, 준왕의 후예가 한왕[19]을 칭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한지에 정착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명으로 '한'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고지진국(古之辰國)'의 이해

준왕이 남천한 후 한왕을 자칭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정착하였기 때문에 진국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한국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이 한왕의 후사가 끊긴 이후 한왕을 계승하지 않고 진왕을 세운 것은 일단 한씨의 성이 절멸(絶滅)되어 더 이상 한씨 성의 왕을 의미하는 한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통치자를 '한왕'이라고 칭할 수 없어 다시 회귀하여 '진왕'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역명도 '한' 대신에 다시 '진'으로 회귀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명은 '한'에서 '진'으로 회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서 상에 보이는 진국의 실체를 살펴보자.

---

19) '韓' 명칭의 기원에 대한 연구사는 전진국, 앞의 논문, 2012, pp. 148-152 참조.

E-1-1 傳子至孫右渠, …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史記』 권115, 朝鮮傳)

E-1-2 傳子至孫右渠, …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閼弗通.(『漢書』 권95, 朝鮮傳)

E-2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蓄不相往來.(『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韓조 所引『魏略』)

E-1기사는 『사기』와 『한서』의 조선전에 실린 것으로, 위만조선의 우거왕(右渠王) 때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사기』) 또는 '진번진국(眞番辰國)'(『한서』)이 상서(上書)하여 천자를 조견하고자 하였으나 위만조선이 막아 통하지 않은 사실을 전한다. E-1의 두 기사에 보이는 차이는 상서하여 천자를 조견하고자 한 『사기』의 '진번방중국'과 『한서』의 '진번진국'이다. 『사기』의 '진번방중국'은 '진번 근방의 중국(衆國)'[20] 또는 '진번과 방중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 기사가 조선전에 실려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진번방중국'을 '진번 근방의 중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번방중국'은 '진번과 방중국'으로 이해하고, '방중국'을 '고조선 근방의 중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한서』의 '진번진국'이 '진번과 진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한서』가 전대에 편찬된 『사기』를 참조하였음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방중국'을 '진국'으로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가 『사기』의 편찬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위만조선의 멸망 당시의 상황을 『한서』를 편찬할 때 새로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1]

---

20) 조법종, 「낙랑군의 성격 문제 - 낙랑군의 낙랑국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p. 175.

21) 박대재는 서지학적인 연구를 통해 판본상에서는 '衆國'이 맞는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005, pp. 5-11).

새로 알게 된 사실의 하나가 바로 E-2기사일 수도 있다. E-2기사는 위만조선 멸망 직전인 우거왕 때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동으로 진국에 간 사실을 전한다. 이로부터 진국이 고조선의 동방에 위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때 2천여 호가 역계경과 함께 하였다고 하므로, 마한의 소국이 수천 호였다고 하는 사실[22]을 감안하면, 역계경 집단은 진국에 속하는 1국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진국이 『사기』에서 말하는 '중국(衆國)'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만조선에 공물을 바치는 번(蕃)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통해, 역계경 집단이 속한 진국은 구성원의 자립성이 강한 정치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진국은 시기적으로 위만조선과 병존하면서[23] 그 동방에 위치하였으며, 결속력이 비교적 느슨한 정치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서』는 위만조선의 우거왕 때 역계경이 진국으로 간 사실에 근거하여 『사기』의 '방중국'을 '진국'으로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한서』에서도 '방(旁)'을 '진번의 근방'이 아니라 '위만조선의 근방'으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조선의 동방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진국은 한국이 성립된 뒤에는 '고지진국(古之辰國)'이란 표현으로 사서에 등장하고, 그 흔적은 삼한의 구성원인 진한(辰韓)과 변진(弁辰)이라는 명칭으로 보인다.

F-1 韓, …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 …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

22)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馬韓, …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23) 『漢書』에 기재된 '辰國'이라는 명칭도 앞에서 살펴본 '韓地'·'韓國'·'馬韓'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後漢代의 이해에 근거하여, 古朝鮮이 존재하였을 당시에는 단순히 '여러 나라(衆國)'으로 이해되었다가 古朝鮮의 멸망 이후 古朝鮮 주변의 '衆國'을 前漢 정부가 樂浪郡을 통해 파악하면서 범주화하여 '辰國'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 辰韓, … 始有六國,[24]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 弁·辰韓合二十四國,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 弁辰與辰韓雜居, … 十二國亦有王.(『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F-2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凡七十八國, … 地合方四千餘里, …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F기사는 『삼국지』와 『후한서』에 실린 한에 관한 내용 가운데 위치, 종류, 역사 및 진왕 등에 관한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두 사서에 보이는 대표적인 차이점은 '고지진국'과 '진왕'에 대한 이해이다. 『삼국지』는 진한이 '고지진국'이어서 진한의 12국이 진왕에 속하고,[25] 변진은 12국에 또한 왕이 있어 진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후한서』는 삼한 모두가 '고지진국'이어서 진왕이 삼한 땅의 왕이라고 이해하였다. 마한인이 진왕이 된 것에 대해서 『삼국지』는 진한인이 유이인이므로 마한인이 진왕이

24) 박대재는 『三國志』의 撰者인 陳壽가 斯盧國에 있었던 '6部' 혹은 '6村'을 辰韓 12'國'의 전신이었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6개의 집단을 '國'으로 誤記한 것이라고 보았다(「辰韓 諸國의 규모와 정치발전단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2, 1997, p. 9). 하지만 역으로 편찬의 연대가 훨씬 후대인 『三國史記』가 『三國志』의 기술에 근거하여 '斯盧六村'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25) 이 12국을 弁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馬韓과 樂浪·帶方郡과의 군사 충돌과 目支國의 쇠퇴」, 대구사학회, 『大丘史學』 71, 2003, p. 54). 하지만 『三國志』 弁辰조에 "十二國亦有王"이라고 하는 기사와 『魏略』의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라는 구절이 『三國志』 辰韓조의 "其十二國屬辰王"의 바로 다음에 위치한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이라는 구절의 注로 기재된 것을 보면, '其十二國'은 辰王에 속하는 12國임이 분명하다.

되어 진한을 통제한다고 이해한 반면에, 『후한서』는 마한이 당시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후한과 삼국 때 '진국'은 옛 국가로 당시 존재하지 않은 반면에,[26] '진왕'은 당시 존재한 실체라는 사실이다.[27]

당시에 있어 과거의 '진국'과 현재의 '진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선 진국에 주목해 보자. 『삼국지』(F-1)의 "辰韓者, 古之辰國也"와 『후한서』(F-2)의 삼한이 "皆古之辰國也"라는 구절은 두 사서의 진국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름을 보여준다. 즉 『삼국지』는 '진한=고지진국'이라는 것이고, 『후한서』는 '삼한=고지진국'이라는 것이다. 한전(韓傳)의 경우 『후한서』가 『삼국지』를 윤문·전재한 것[28]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대에 편찬된 『후한서』가 『삼국지』의 기사를 대부분 윤문·전재하였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삼국지』와 달리 기록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후한서』의 찬자인 범엽(范曄)이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를 추정하자면, 그것이 『삼국지』의 기사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辰王治月支國"이라는 구절이다. 진왕이 마한의 1국인 월지국(목지국)을 치소로 하였다면, 진한 12국뿐 아니라 마한지역도 통치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마한의 제국(諸國)을 총괄하는 왕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한 12국이 진왕에 속한 것처럼 마한 54국도 누군가에 속해야 하는데,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진에 대해 "十二

---

26)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古之辰國'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辰國으로 이해한 반면, 徐毅植은 '今之辰國'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다(「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 역사교육연구회, 『歷史敎育』 114, 2011, pp. 246-247).

27) 박대재,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p. 38.

28) 이병도, 「'韓'명칭의 起源과 辰韓의 성격」, 앞의 책, 1976, p. 251.

國亦有王"(F-1)이라 하여 변진의 각 국에 왕이 있다고 한 것처럼, 마한 각 국에 王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셋째, 마한과 변진의 신지에게 우호(優號)를 더한 구절이다. 우호한 대상을 보여주는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라는 구절에 밑줄친 신운·안야·구야가 보이는데, 이는 마한의 신운신국(臣雲新國)과, 변진의 안야국(安邪國)과 구야국(狗邪國)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삼국지』 기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진왕이 진한뿐 아니라 마한과 변진도 아울러 관할하는 왕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추정한 『후한서』의 찬자인 범엽의 확신 근거에는 옛 진국과 현 진왕을 동일시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추정해 본 근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삼한=고지진국'이라고 한 『후한서』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장 자체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지』의 "辰韓者, 古之辰國也"란 구절이 한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부분과 마한에 대한 서술 부분 사이에 위치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 구절은 일견 진한에 대한 서술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29]

G-1 韓, …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辰韓, 古之辰國也.(『翰苑』 東夷傳 三韓조 所引 『魏略』)

G-2 韓, …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G-3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皆古之辰國也.(『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

29) 『삼국지』는 辰韓에 대한 서술에 앞서 辰王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辰韓者, 古之辰國也"란 구절을 馬韓에 대한 서술 부분의 앞에 위치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G기사는 삼한의 명칭과 '고지진국'에 관한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삼한의 명칭은 『위략』과 『후한서』가 동일하고, 『삼국지』만 변진(弁辰)이 변한(弁韓)으로 되어 있다. 『삼국지』에서도 진한과 변진의 24국을 열거하면서 변진에 속한 12국의 명칭 앞에 '변진'이라고 붙였고, "弁辰亦十二國" 및 "弁辰與辰韓雜居"라는 구절에서도 '변진'이라고 한 사실을 보면, 변진이 공식적인 명칭이었음은 분명하다.[30] '고지진국'은 『위략』과 『삼국지』가 동일하게 '진한'이라 하였고, 『후한서』는 '개(皆)'[31]라 하여 삼한 전체를 '고지진국'으로 보았던 것이다.

『위략』의 "辰韓, 古之辰國也"에서 밑줄친 '진'자를 연자(衍字)로 보면, "韓, 古之辰國也"가 되어 『후한서』와 같은 의미가 된다. 『삼국지』의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에서 밑줄친 '한'을 연자로 보면, "三曰弁辰. 韓者, 古之辰國也"라고 끊어 읽을 수 있어 『후한서』와 같은 의미가 된다. 『후한서』의 찬자는 오늘날 보이는 『위략』의 내용과는 다른 이본(異本)의 『위략』을 참조하였기에 "皆古之辰國也"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후한서』 찬자의 "皆古之辰國也"에 대한 자신감은 "盡王三韓之地"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경우는 『삼국지』가 삼한을 열거하면서 '변한'이라 한 것이 아니라 '변진'이라 한 것이 되어, '변진'이라는 정식의 명칭을 열거한 것이 된다. 그리고 "辰韓者, 古之辰國也"란 구절이 "韓者, 古之辰國也"로 바뀌어 마한에 관한 기사 부분의 앞에 위치한 까닭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장 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辰韓者, 古之辰國也"가 "韓者,

30) 徐毅植도 『三國志』(G-2)의 '弁韓'보다는 '弁辰'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2011, p. 242).

31) 徐毅植은 '古之辰國' 앞에 『後漢書』는 '皆', 『後漢書』는 '者'로 되어 있는데, 『後漢書』의 '皆'가 옳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2011, pp. 243-244).

古之辰國也"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을 엿보았는데,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국이 위만조선의 동방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은 '삼한=고지진국'(『후한서』)보다는 '진한=고지진국'(『위략』·『삼국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마한의 동에 위치한 진한이 위만조선의 동에 위치한 '고지진국'일 가능성이 삼한 전체가 '고지진국'일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진한과 함께 마한의 동에 위치한 변진도 정식명칭을 '변한'보다는 '변진'이라고 함으로써 '진'과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데, 이 역시 진국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서방보다는 동방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높인다.

'한'에서 '진'으로 지역명이 바뀐 것은 그 중심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이라는 지역의 중심세력은 주지하다시피 한의 서방에 위치한 마한이고 그 중에서도 목지국인 반면에, '진'이라는 지역의 중심세력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지는 위만조선의 동방 즉 한의 동방에 위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가 한왕에서 진왕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역명을 '한'에서 '진'으로 바꾸지 않은 배경에는 그 중심지가 한은 서방에, 진은 동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진왕의 실체

1) 『위략(魏略)』의 '주(主)'와 『삼국지(三國志)』의 '진왕(辰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지진국'이 삼한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고, 그 중심지가 동방에 위치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진왕[32]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될 것이다. 진왕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조위(曹魏) 함희(咸熙) 2년(265) 경에 편찬된 『위

략』인데,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른 문헌에 일문(逸文)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왕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략』을 인용하는 사료는 3세기 말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진수(陳壽, 233~297)의 『삼국지』에 429년에 배송지(裴松之)가 단 주(註)와 당대(唐代) 660년경에 장초금(張楚金)이 편찬한 『한원(翰苑)』에 옹공예(雍公叡)가 단 주(註)이다. 이를 통해 『위략』이 적어도 당 전반기까지는 현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대에 편찬된 사서들은 『위략』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대까지의 사서에 보이는 진왕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진왕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사료의 성서순).

H-1-1 三韓各有長帥(帥), 其置官, 大者名臣(臣)智, 次曰邑借. 凡有小國五十六, 惣十餘萬戶. ㉠辰王治目支國, [木]支國置官, 赤(亦)多曰臣智.(『翰苑』 권30, 蕃夷部 三韓注 所引 『魏略』)

H-1-2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 代代相承. 其地宜五穀, …(『翰苑』 권30, 蕃夷部 三韓注 所引 『魏略』)

H-1-3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조 所引 『魏略』)

H-2 馬韓, … ㉠辰王治月支國. … 辰韓,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

H-3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H-4 又㉡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相係. ㉣辰韓不得自立爲王.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梁書』 권54, 新羅傳)

H-5 又有弁辰, 亦十二國, 合四五萬戶.(弁辰)皆屬於辰韓.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晉書』 권97, 四夷傳 辰韓)

---

32) 辰王의 칭호를 公孫氏 정권이 수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臣濆沽國」, 충남대 백제연구소, 『백제연구』 34, 2001, p. 32).

H-6 ㉡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傳. ㉢辰韓不得自立王.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北史』 권94, 新羅傳)

H-7 ㉡其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傳襲. ㉢辰韓不得自立爲王, ㉣明其流移之人故也.(『通典』 권185, 邊防典1 辰韓)

H-1기사(『위략』)에 의하면, 진왕은 목지국을 치소로 하고(㉠), 진한인은 늘 마한인을 '주(主)'로 삼아 대대로 서로 계승하는데(㉡), 그들이 유이민인 까닭에 마한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위략』의 기사에 의하면 진왕에 관한 내용은 ㉠뿐이다. "진한인이 늘 마한인을 '주'로 삼고 그 '주'가 대대로 계승한다."고 한 그 '주'가 진한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진한의 각 국을 통제하는 존재(ⓑ)인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과 ㉣이 진왕과 관계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H-2기사(『삼국지』)에 의하면, 진왕은 목지국[月支國]을 치소로 하며(㉠), 진한의 12국이 진왕에 속하고, 그 진왕은 마한인이 되어 대대로 서로 계승하지만(㉡), 진왕은 자립하여 王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진왕은 늘 마한인이 되고 대대로 서로 잇는다."는 구절은 "其(辰韓)十二國屬辰王"이라는 구절이 앞에 있어 진왕이 진한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삼국지』의 기사는 『위략』의 "진한인은 늘 마한인을 '主'로 삼아 대대로 서로 계승한다."는 구절(㉡)을 ⓐ와 같은 의미, 즉 진한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삼국지』의 기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진왕이 자립하여 왕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H-3기사(『후한서』)에 의하면, 마한이 가장 크므로 (삼한이) 그 종(種)을 함께 세워(共立) 진왕으로 삼고 목지국을 도읍으로 하여 삼한 땅 전체의 왕이 되며, 삼한 제국(諸國)의 왕은 그 선조가 모두 마한인이라는 것이다. 『후한서』 기사는 『위략』의 "진한인이 늘 마한인을 '주'로 삼는다."는 구절(㉡)을 ⓑ와 같은 의미, 즉 진한의

각국을 통제하는 존재로 이해하여 『삼국지』의 이해와는 달리 진한의 각 국이 각기 마한인을 '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하며, 그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한서』는 『삼국지』에서 진왕이 진한을 통제한다고 한 사실과는 달리 삼한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존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삼국지』의 "진왕은 자립하여 왕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을, 『후한서』는 삼한사회 전체가 마한인을 진왕으로 함께 세우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대에 편찬된 『양서(梁書)』(H-4, 637년)·『진서(晉書)』(H-5, 648년)·『북사(北史)』(H-6, 659년)·『통전(通典)』(H-7, 803년)의 기사는 형태상 『삼국지』의 기사(H-2) 다음에 『위략』의 기사(H-1-3)를 나열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배송지의 주가 달린 『삼국지』를 그대로 전사(轉寫)한 것처럼 보인다. 당대에 편찬된 사서의 기록은 문맥상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서』·『북사』·『통전』의 기록으로 ㉡구절의 주어가 '진한왕(辰韓王)'(『양서』·『북사』) 또는 '기왕(其王)'(『통전』)인 까닭에 ㉡구절을 '작지(作之)'로 끝맺고, ㉢구절도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양서』·『북사』) 또는 "明其流移之人故也"(『통전』)으로 되어 있다. 즉 『북사』와 『통전』이 『양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진서』의 기록으로, 그 문맥 구조가 『위 략』의 기사와 거의 같다. 즉 『진서』는 ㉡구절의 주어가 '왕'이 아닌 '진한'으로 『위략』(H-1-1)이 '진한인'이라 하여 '왕'이 아닌 것과 같고, '작주(作主)'로 끝맺음을 하는 것도 동일하다. 또한 ㉢구절은 『위략』(H-1-3)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 사서가 당대에 편찬될 당시에 『위략』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삼국지』뿐 아니라 『위략』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의 기사 중 "辰王[33]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라는 구

33) 박대재는 이 구절의 '辰王'이 '辰韓王'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절(㉡)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략』의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 代代相承"라는 구절(㉡)과 문맥의 형태상 거의 같다. 만약 『삼국지』의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라는 구절(㉠)을 『위략』의 한 구절로 볼 수 있다면, "辰王不得自立爲王"이라는 구절(㉣)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위략』의 한 구절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당대에 편찬된 사서들의 기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배송지의 주가 달린 『삼국지』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존해 있던 『위략』의 원문을 그대로 전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대의 사서들 가운데 『위략』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서』인데, 『진서』는 『양서』·『북사』·『통전』 등과 함께 당대에 편찬된 것이지만, 그것이 서술대상으로 하는 시기가 진대(晉代, 265~420)이므로 진대에 남아 있던 사료를 주된 자료로 삼아 편찬하였을 것이다.

『진서』의 "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라는 구절 가운데 밑줄친 "而不得自立"이라는 구절만이 『위략』의 기사인지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략』의 기사(H-1-2)는 ㉡부분 바로 다음에 "其地宜五穀, …"라는 구절이 있어,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 代代相承"(㉡)은 "而不得自立"(㉣) 및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문맥상 ㉡과 ㉢은 연결되어 기재되어야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한원(翰苑)』에 인용된 『위략』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용이 축약되어 기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부분 다음에 ㉣부분이 이어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분이 『위략』의 내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분을 『위략』의 한 구절로 본다면 『진서』의 서술과 같이 『위략』에는 ㉡·㉣·㉢ 순으로 이어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

(앞의 논문, 2002, pp. 42-46).

러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삼국지』는 『위략』의 "而不得自立"이란 구절에 밑줄친 부분을 추가하여 "辰王不得自立爲王"(㉣)으로 고쳐 썼다고 하겠다. 『삼국지』의 이 구절(㉣)은 난해한 문장으로, "진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 문장을 『후한서』(H-3)는 "마한이 가장 크므로 마한인(其種)을 함께 세워(共立) 진왕으로 한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후한서』와 같이 이해한다면, 『삼국지』의 이 구절(㉣)은 진한 기사 부분에 기재될 것이 아니라 마한 기사 부분에 기재되어 "辰王治月支國"(㉠)의 뒤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삼국지』의 이 구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대에 편찬된 『진서』를 제외한 『양서』·『북사』·『통전』은 『삼국지』의 '진왕'을 '진한'으로 개서하여 "진한은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위략』에 근거하여 진왕의 문제를 살펴보자. 『위략』에서는 진왕이 목지국을 치소로 한다는 내용(㉠)만이 확인된다. 문제는 『위략』의 ㉡과 ㉢을 진왕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위략』의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라는 구절에서 '주'가 진왕을 가리키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된다. 『위략』의 구절에서 주목되는 어휘는 '진한인'·'마한인'·'상(常)'·'주(主)'라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진한인'이 진한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진한'이라고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의 '진한인'은 진한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한의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한인'이 진한의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는 마한의 목지국을 치소로 하는 진왕이라기보다는 신지·읍차(邑借) 등으로 불리는 그들의 거수(渠帥)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늘(常)'이라는 표현은 진한인이 마한인을 그들의 主로 삼는 것이 일회적인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약 '진한인'을 진한사

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주'를 진왕으로 볼 경우, 그 주인 진왕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므로 한번 마한인을 진왕으로 삼으면, 더 이상 마한인을 진왕으로 삼는 일이 없게 된다. 이 경우는 일회적인 것이 되어, '늘(常)'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위략』의 "辰韓人常用馬韓人作主"라는 구절을 진한의 개개인이 늘 마한인을 신지·읍차 등으로 불리는 그들의 거수('主')로 삼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위략』의 '주'는 진왕이 아닌 진한에 속한 국의 신지·읍차 등으로 불리는 거수인 것이다.[34]

『위략』의 '주'가 진한에 속한 국의 신지·읍차 등으로 불리는 거수인 까닭에 "不得自立"(㉣)이란 구절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즉 "不得自立"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진한인이 마한인을 그들의 '주'로 삼을 때 그들 마음대로 아무 마한인이나 골라 세울 수 없다는 것으로, 진왕이 고른 마한인을 그들의 '주'로 대신 세워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한인이 그들이 고른 마한인을 主로 삼고자 할 때 진왕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不得自立"이란 구절 앞에 "世世(代代)相承"이란 구절이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不得自立"의 의미는 그 '주'가 대대로 계승되지만 계승되어 새로운 '주'가 즉위할 때마다 진왕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종속국의 군주가 계승될 때마다 종주국 군주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위략』의 ㉡과 ㉢기사는 진왕에

34) 『隋書』 권81, 東夷傳 新羅,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이 기사에 의하면 新羅의 王이 본래 百濟人으로 바다로부터 新羅로 도망해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新羅에 의해 전해진 기사인 까닭에 百濟人이 新羅로 도망해 들어왔다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리 이해하면, 百濟의 전신인 馬韓의 伯濟國 출신이 辰韓에 속한 斯盧國의 후신인 新羅의 王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진한 각 국의 거수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진왕의 실체[35]

진왕의 실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Ⅰ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

Ⅰ기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은 가호(加號)에 관한 것이고, ㉡은 '기관(其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가호(㉠)에 관한 부분은 ⓐ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호(㉠)에 대해 살펴보자. "臣智或加優呼"(ⓐ)란 구절에 보이는 신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체로 보는 입장(①)과 객체로 보는 입장(②)으로 나뉜다. 두 입장 모두 다시 신지를 목지국의 신지로 보는 입장(1)과 뒤에 나오는 4국의 신지로 보는 입장(2)으로 나뉜다. ①-1입장은 "(목지국의) 신지가 (4국의 수장에게) 혹은 우호(優號)를 더하여 주었다"고 보고, ①-2입장은 "(4국의) 신지들이 (진왕에게) 혹은 우호를 더하여 주었다"고 본다. ②-1입장은 "(진왕이) 목지국의 신지에게 혹은 우호를 더하여 주었다"고 보고, ②-2입장은 "(진왕이) 4국의 신지에게 혹은 우호를 더하여 주었다"고 본다.[36]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위 명제 경초(景初, 237~239)

---

35) 辰王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pp. 38-40; 宣石悅, 「『三國志』 弁辰傳의 辰王의 解釋 問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47, 2003, pp. 1-2 참조.

36) 加號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p. 29와 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 41 참조.

중에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사(加賜)' 앞에 위치한 '제한국신지(諸韓國臣智)'가 객체로 해석되는 예에 비추어 볼 때 ⓐ의 신지도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객체인 ⓐ의 신지를 목지국의 신지로 볼 경우 ⓑ 이하의 문장이 해석되지 않고,[37]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진왕과 목지국 신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②-2의 입장과 같이 진왕이 4국의 신지[38]에게 가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9]

ⓑ문장은 해독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다양한 독법이 제기되었다. 일찍 제기된 독법은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으로 끊어 읽는 것이다.[40] 여기에서는 '신운(臣雲, 臣雲新國)'・'안야(安邪, 弁辰安邪國)'・'분신리아(濆臣離兒, 臣濆沽國)'・'구야(拘邪, 弁辰狗邪國)'는 국명으로, 견지(遣支)・축지(踧支)・불

37) 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 41.

38) 辰王에게서 優號를 가해 받은 4國의 臣智가 辰王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辰王이 이들에게 優號를 가한 것은 이들을 자신의 광의의 세력권 하에 두려는 진왕의 의지가 담겼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尹善泰, 앞의 논문, 2001, p. 33).

39) 박대재는 I-㉠기사가 辰王과 관계가 없는 三韓 일반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사의 4국의 臣智에게 加優號한 것이 三韓 여러 小國의 臣智들과 구분되는 '大國'의 臣智들에게 적용되었던 상대적 優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2002, pp. 51-52). 이와 같이 보기 위해서는 加優號의 주체가 辰王이 아닌 이상, "臣智或加優呼…之號"라는 구절에서 주체는 臣智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臣智를 객체로 보아 臣智들 가운데 4國의 臣智에게 加優呼하였다고 볼 경우, 그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설사 주체가 三國 諸國의 渠帥(長帥)라고 할지라도 이들 모두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臣智에게 加優號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馬韓 小國의 長帥인 邑借가 弁辰 大國의 渠帥인 臣智에게 加優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I-㉠기사가 辰王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三韓 일반에 관한 것이라면, 馬韓 관련 부분에 기재될 이유는 더 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I-㉠기사는 辰王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0) 이병도, 앞의 책, 1976, p. 279.

례(不例)·진지(秦支)는 관명(官名)으로, 보(報)·염(廉)은 수장의 이름으로 파악하였다. 이 독법의 문제점은 국명의 경우에 3국은 두 자인데 반해 분신리아만 네 자라는 점, 인명의 경우에 신운신국과 구야국은 인명이 보이는데 안야국과 신본고국에는 인명이 보이지 않는 점, 분신(濆臣)을 신분(臣濆)의 도치로 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41]

최근에 다섯 글자씩 끊어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로 보는 독법이 제시되었다.[42] 여기에서는 다섯 글자가 '○○(國名)+○○(官名)+○(人名)'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에서도 국명이 확인되지 않은 '신리(臣離)'에 대해서는 『진서(晉書)』 장화전(張華傳)에 나오는 신미국(新彌國)에 비정하고 '아부(兒不)'를 새로운 수장의 칭호로 간주하였다. 이 독법의 문제점은 역시 국명에 있어 3국은 『삼국지』 한전에 열거된 명칭인 반면에 신미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장화전에 "東夷馬韓·新彌諸國衣山帶海, 去州四千與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竝遣使朝獻."이라고 되어 있어, 신미국을 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삼한에 속한 국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가호의 내용이 실린 『삼국지』 한전에 실리지도 않은 국에 진왕이 우호의 호를 가(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찍이 제기된 견해와 최근에 제기된 견해를 감안하여 ⓑ기사를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으로 다섯 글자씩 끊어 읽고 '濆'과 '離'가 도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사의 특징은 '신운(臣雲)'·'안야(安邪)'·'구야(拘邪)'라는 국명이 보이는 점과 '견지보(遣支報)'·'축지분(踧支濆)'·'진지렴(秦支廉)'에 보이는 '지(支)'라는 글자이다. ⓑ기사에

41) 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p. 42-43.
42) 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p. 43-45.

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리아불례(臣離兒不例)'인데, 여기에는 국명도 '지'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를 해체하여 "安邪踧支離·臣濆兒支例"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安邪踧支濆'의 '분(濆)'자와 '臣離兒不例'의 '리(離)'자의 위치를 바꾸고, '臣離兒不例'의 '불(不)'를 '지(支)'의 오기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濆)'과 '신(臣)'이 도치된 것[43]이 아니라 '분(濆)'과 '리(離)'가 도치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국명을 추출하고 다섯 글자씩 끊어 읽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서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다섯 글자는 '국명+○지○'의 형식이 된다. '○지○'를 하나로 보아 '신지호'라는 견해[44]도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官名)+○(人名)'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구체적으로 '견지(遣支)'는 험측(險側), '축지(踧支)'·'진지(秦支)'는 신지, '불례(不例)'는 번예(樊穢)에 비정하는 견해[45]도 있고, '아부(兒不)'를 새로운 수장의 칭호로 보는 견해[46]도 있다. 하지만 ⓑ기사는 신지에게 우호하는 호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지'·'축지'·'불례'·'진지'를 험측·신지·번예에 비정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를 '○(신지의 인명)+지○(우호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다섯 글자는 '○○(國名)+○(臣智의 人名)+지○(優呼名)'의 형태가 되어,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之號"를 "신운신국(臣雲新國)의 신지인 견(遣)에게 '지보(支報)'라는 우대하여 부르는(優呼) 호(號)를 가(加)한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호로 보이는 '지보'·'지리'·'지례'·'지렴'의 의미는 불

43)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p. 29.
44)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p. 49·54.
45) 이병도, 앞의 책, 1976, p. 279.
46) 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 45.

분명하다.

다음으로 '기관(其官)'(㉡)에 대해 살펴보자. '기관'에 보이는 "위솔선읍군(魏率善邑君)·귀의후(歸義侯)·중랑장(中郎將)·도위(都尉)·백장(伯長)"이라는 관호(官號)는 경북 상주에서 출토된 위솔선한백장인(魏率善韓栢長印)[47]과 영일군에서 출토된 진솔전예백장인(晉率善濊佰長印)으로부터 '위솔선'이라는 칭호가 읍군·귀의후·중랑장·도위·백장 앞에 붙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관(官)은 삼국 위(魏)나 진(晉)에서 수여된 관호임에 틀림없다.[48] 또한 이들 인장(印章)에 통해 보이듯이 백장(伯長·栢長·佰長)이란 관호에는 '한(韓)'이나 '예(濊)'가 명시되어 있어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체에서의 신분·지위를 보여주고 있다.[49]

이와 관련하여 삼한 자체의 각국 거수의 호칭에 대해 살펴보자.

J-1 馬韓, …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 辰韓, …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韓)

J-2 辰韓, … 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後漢書』 권85, 東夷傳 韓조)

J기사는 삼한 각국의 장수(長帥, 마한)·거수(渠帥, 진한·변한)의 명칭을 전한다. 『삼국지』(J-1)에 의하면 마한은 각국의 장수가 대국인 경우에 '신지', 그 다음은 '읍차'라고 스스로 칭하였고(自

47) 李賢惠, 앞의 책, 1984, p. 107.

48)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 219.

49) 魏率善 이하의 官號가 馬韓 諸國의 수장에게 주어진 魏의 官名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盧重國, 앞의 논문, 2003, pp. 45-46), 辰韓지역에 해당하는 것에서도 '魏率善韓栢長'印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三韓 諸國의 수장에게 주어진 官號로 보아야 할 것이다.

名), 진한과 변진은 각국의 거수가 차례로 '신지'·'험측'·'번예'·'살해(殺奚)'·'읍차'로 칭하였다. 『후한서』(J-2)는 진한의 거수 칭호만을 『삼국지』와 같이 전하고 있다. J기사의 '신지'·'읍차' 등의 명호(名號)는 거수(장수)의 자칭(自稱)인 것으로, 삼국 위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읍군·귀의후·중랑장·도위·백장의 명호를 '위솔선'이란 호칭을 앞에 붙여 삼한의 거수(장수)들에게 사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관'의 관호는 삼한의 자체적인 호칭체계를 위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비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신지에게는 읍군, 험측에게는 귀의후, 번예에게는 중랑장, 살해에게는 도위, 읍차에게는 백장이라는 호칭이 사여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관호와 진왕은 어떤 관계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왕은 목지국을 치소로 하므로, 목지국의 신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목지국의 신지는 한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지에게 주어지는 읍군이란 관호 대신에 이보다 높은 '왕'이라는 관호가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를 '진왕'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솔선 이하의 관호를 '기관'이라 표현한 것은 이들이 진왕의 속관임을 보여주는 것[50]이라기보다는 이들과 진왕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진왕과 삼한 제국(諸國)의 거수(장수)와의 위계질서가 위(魏)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51]

4. 맺음말

50) 尹善泰, 앞의 논문, 2001, p. 28.

51) 魏가 三韓의 渠帥에게 邑君 등의 官號를 책봉한 것이 三韓의 정치적 통합을 방해하기 위한 분열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尹善泰, 앞의 논문, 2001, p. 28; 박대재, 앞의 논문, 2002, p. 53). 하지만 '魏率善韓佰長'印에 '韓'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 三韓 諸國의 渠帥에 대한 韓, 즉 辰王의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말·한초의 격동기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피난하여, 전국시대 연·제·조 출신의 사람들은 고조선지역으로, 진 출신의 사람들은 한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 출신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한 연·제·조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과 함께 고조선의 서방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지로 이주해 왔던 것이다.

사서 상에는 진말의 혼란기에 진인이 한지로 피난하여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지역을 떼어주었다고 하여 당시 '한'이라는 지역명과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존재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한 기로의 회고담이므로, 회고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한'이라는 지역명과 '마한'이라는 정치체의 명칭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진인이 한지로 들어왔을 당시는 아직 '한'이라는 지역명과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나 남쪽으로 와 한왕을 자칭하면서 '한'이라는 지역명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이라는 정치체의 명칭 역시 전국시대 진의 유이민들이 한의 동쪽에 진한이라는 정치체로 성장한 것을 계기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왕의 후예가 절멸된 뒤에 한왕 대신에 진왕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기사를 통해, 진인이 피난 온 한지는 '한'이라는 지역명이 사용되기 이전에 '진'이라는 명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사서 상에서는 삼한을 '고지진국(古之辰國)'이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래 진의 중심지는 고조선의 동 즉 한의 동방인 진한이 위치한 지역에 위치한 반면, 한의 중심지는 한의 서방에 위치한 마한이었기 때문에, 중심지의 차이로 인해 지역명은 '한'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진국'이라는 정치체의 명칭은 사라지고 '진왕'이라는 통치자의 명칭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진왕은 마한의 목지국을 치소로 하면서 삼한을 대표하였고, 대국의 거수인 신지에게 우호(優呼)하는 호칭을 더해주기도 했다. 즉 신운신국·변진안야국·신분고국·변진구야국의 신지인 견·축·아·진에게 지보·지분·지례·지렴이라는 우호하는 호칭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삼한 각국의 수장은 삼국 위 때에는 '위솔선', 진대에는 '진솔선'의 칭호를 앞에 붙인 읍군·귀의후·중랑장·도위·백장의 호칭을 위나 진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진한과 변진 각국의 거수가 차례로 신지·험측·번예·살해·읍차로 칭한 것과 관계된 것으로, 신지에게는 읍군, 험측에게는 귀의후, 번예에게는 중랑장, 살해에게는 도위, 읍차에게는 백장이라는 호칭이 사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진왕과 삼한 제국(諸國)의 거수(장수)와의 위계질서가 위(魏)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한 가운데 진한의 경우는 그들이 유이인인 까닭에 마한인을 그들의 거수로 삼았는데, 그들은 대대로 계승할 수는 있지만 마한으로부터 자립할 수는 없었다. 즉 진한 각국의 거수는 새로 즉위할 때마다 진왕의 허가를 얻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博物志』,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隋書』, 『潛夫論』, 『晉書』, 『漢書』, 『後漢書』

2. 논문

강종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제문제」,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 pp. 15-41.

盧重國, 「馬韓과 樂浪·帶方郡과의 군사 충돌과 目支國의 쇠퇴」, 『大丘史學』 71, 2003, pp. 39-74.

박대재, 「箕子 관련 商周靑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2010, pp. 111-148.
박대재,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 2005, pp. 2-24.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35, 2011, pp. 111-137.
박대재, 「辰韓 諸國의 규모와 정치발전단계」, 『韓國史學報』 2, 1997, pp. 7-39.
박대재,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pp. 33-73.
徐毅植,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 『歷史敎育』 114, 2011, pp. 233-278.
宣石悅, 「『三國志』 弁辰傳의 辰王의 解釋 問題」, 『역사와 경계』 47, 2003, pp. 1-23.
申鉉雄, 「『晉書』 辰韓傳 記事의 性格」, 『新羅文化』 30, 2007, pp. 7-28.
尹善泰, 「馬韓의 辰王과 臣濆沽國」, 『백제연구』 34, 2001, pp. 1-38.
李丙燾, 「「韓」名稱의 起源과 辰韓의 性格」,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pp. 249-255.
李丙燾, 「樂浪郡考」,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pp. 133-157.
전진국, 「'한(韓)'의 유래와 명칭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p. 146-185.
조법종, 「낙랑군의 성격 문제 - 낙랑군의 낙랑국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pp.161-189.
야마구찌 가즈오, 「진한(辰韓)과 하타씨(秦氏)의 고찰」, 『東아시아古代學』 22, 2010, pp. 279-298.

3. 단행본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潮閣, 1984.

[Abstract]

Jin State and King of Jin

- About the Establishment of 'Han' -

Kim, Sung-han

In the end of Qin(秦) and the beginning of Han(韓), many people refuged to the East and the people from Yan(燕), Qi(齊) and Zhao(趙) in the Warring States Period(戰國時代) moved to Gojoseon(古朝鮮), and the people from Qin(秦) migrated to the area of Han.

Through a record that all the descendants of King of Han were exterminated and instead of King of Han(韓王), King of Jin was newly built, 'Jin(辰)' was called before Hanzi(韓地) where Qin people immigrated was called a new district name of 'Han'. But, while the original central district of Jin was located at the area where Jinhan(辰韓), the East of Han was located, that of Han was Mahan(馬韓) which was located at the West of Han. Therefor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central districts, the district seems to have used the name of 'Han' as it was. At last, the name of the political system called 'Jin State(辰國)' disappeared and the name of a ruler, 'King of Jin' remained.

King of Jin represented Samhan(三韓) by taking Mokzi State(目支國) of Mahan as Chiso(治所) and gave a title of Uho(優呼) to Sinji(臣智), a Geosu(渠帥) of China. In addition, In case of Jinhan out of Samhan, due to their status of immigrants, they took Mahan people as their Geosu and they could succeed for generations but could not be independent from Mahan. Namely, each Geosu of Jinhan seems to have been granted by King of Jin whenever Geosu accede to the post.

Key words: Jin(辰), Jin State(辰國), King of Jin(辰王), Han(韓), Mahan(馬韓), Jinhan(辰韓), Samhan(三韓), King Chun(準王)

김성한
소속: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과
주소: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전화번호: 010-8950-6510
전자우편: china21@chosun.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2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